



소설가 유재현의 《느린 희망》은 발전이나 개발의 환상과 결별할 때만 인간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꿈꿀 수 있다는 소박한 테마를 쿠바 여행기라는 형식으로 연주해내고 있다. 후퇴하는 경제 = 발전하지 않는 사회 =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는 역설. 쿠바라는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할 지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그들은 더 많은 소비재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감각의 축수를 최대한 '미니멀' 하게 만듦으로써 소박한 의식주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 느려 터진 희망의 향기는 때아닌 헝그리즘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내게는 이 여행기 자체가 멋진 행복의 철학론으로 느껴진다. 쾌락 자체의 총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느끼는 감각을 스스로 훈련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소박한 쾌락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용기. 그리하여 행복에 대한 기갈증과 고통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인간의 신체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체 게바라가 불씨를 일구고 카스트로가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쿠바혁명의 온기의 진원지가 아닐까.

행복을 위해 어떤 치료의 도구나 혁명의 무기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저 "렛잇비(Let it be!)" 자체가 행복의 출구일 수도 있다. 쿠바에는 산 아래의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소금이 필요할 때만 산을 내려가는 부족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목덜미를 틀어쥐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지 않은 혁명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미 기존의 삶에 만족하는 이들의 삶을 굳이 혁명의 빛깔로 채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혁명은 기존의 삶을 무조건 깰그리 부수는 것이 아니라 행복 혹은 평화를 위한 다양한 루트를 고민하는 것일 터이다. 1980년 6개월 동안 12만 5천 명이 쿠바를 떠나던 순간에도 피델 카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떠날 자는 모두 떠나라." 우리는 관용의 미소와 혁명의 피바람이 공존하는 장면에 익숙하지 않다.

혁명의 관건은 '한판승'의 추진력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일 같다. 시시각각 혁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시간의 얼굴과 싸우는 일. 카스트로와 그의 친구들(모든 쿠바인들)의 놀라운 점은 이 시간과의 싸움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그들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출구는 위기 혹은 부재를 창조와 풍요의 계기로 역전시키는 노력이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은 오히려 새로운 농경문화의 혁명을 가져왔다. 코메콘의 붕

괴로 일시적인 경제 붕괴가 찾아왔지만, 비상시기가 선포된 후 농업개혁 등의 결과 에너지와 화학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탄생했으며, 이는 생태와 환경에 있어서 축복과 같았다.

게다가 경제봉쇄로 인해 자동차 부품도 수입되지 않았기에, 쿠바의 자동차 정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견인이란 개념이 부재한 아바나에서는 차가 퍼지면 출장서비스가 기본이다. 어디선가 삼시간에 등장한 기술자들은 멈춘 차를 반드시 굴러가게 해주곤 사라진다. 휴대장비라야 배터리 하나에 휘발유 한통, 스페너 몇 개와 해머가 고작이다." 그들은 고물 트레일러를 개조하여 두 대를 이은 '낙타 버스'를 만들기도 한다. 더 나은 상품 자체가 없기에, 그 '힘블한' 상황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그들은 아주 간단한(거의 초라한) 도구만으로도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브리콜라주를 만든다. 부재를 빈곤이나 남루가 아닌 독창성과 풍요, 유희와 예술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중경제와 암시장은 쿠바 사회자의 시험장이 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느린 희망의 쟁기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체 게바라는 영웅이 아니라 친구이며 카스트로의 생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쿠바인들의 '영웅 사랑법'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영웅은 쿠바 전역의 어린이들이기에. "모든 쿠바의 어린이들은 15살이 될 때까지 생일케이크를 배급받을 수 있다. 제과 배급소를 기웃거릴 때 보니까 아이의 생일을 앞둔 어머니는 케이크의 모양을 설명하고 배급소 노동자는 수첩에 받아 적고 있었다. 공장에 꼭꼭 찍은 케이크를 주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아이의 생일날 케이크를 주는 쿠바지만 우리의 위대한 피델 카스트로 동지의 생일에는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아무도 영웅이 아니기에 모두가 영웅일 수 있는 이곳에서, 한국의 한 소설가는 돈 없이 모르는 세계를 떠도는 배짱 하나로 혁명의 거리를 질주한다. "시에라 마에스트라의 어느 산중에선가 길을 잃었다. 새벽 3시쯤에는 그나마 비포장이던 길도 끊기고 어두운 숲만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길이 끊기자 나는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구나. 차에서 내려 어두운 숲 속을 보고 있자니 숲 사이로 오솔길 하나가 보였다. 다시 불안이 요동을 쳤다." 모든 길이 끊긴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영혼의 자유. 《느린 희망》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출구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소박한 복화술로 속삭인다. 